

2018년 4월 25일

csf@kiep.go.kr



미국의 중국 IT기업 제재 조치와 중국의 반응

- 최근 ZTE,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미중 간 치열한 무역통상 갈등이 IT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 4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中兴通讯)가 북한, 이란 등 제재국가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부품,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거래 금지 조치를 부과.
 - ZTE가 소형 핵심부품의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4월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통신장비를 조달할 경우 보조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가결한 것에 대해 화웨이(华为)를 겨냥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번 조치는 아지트 파이(Ajit Pai) FCC 위원장이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통신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미국인들의 정보를 빼내거나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임.
 - 4월 19일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ZTE, 화웨이, 헨상 등이 가담했다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다고 발표.
- ZTE에 대한 미국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는 제재 대상 국가와의 지속적인 거래 및 관련 합의에 대한 위반 행위 때문으로, 2025년 3월 13일까지 7년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뿐만 아니라 간접수입도 모두 금지됨.
 - 2016년 미국 상무부가 ZTE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어, 이듬해 3월 이 수출 제재 위반 사안에 대해 8.9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의.
 - 2012년 ZTE는 이란 최대 통신업체 이란전신(TCI)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출함.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제재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ZTE가 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유로는 조사 당시 20여 차례가 넘는 거짓 진술, 증거 조작 및 인멸, 조사 중 지속 반복된 위반 행위 등임.
 - 이로써 ZTE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직접 수입과 제3자를 통한 간접 수입도 금지되며 제3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 한 후 ZTE에게 재수출하는 우회 수출도 금지.
 - 설사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성공하더라도, 누구도 구매할 수 없으며 설치·유지·보수 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음.
- ZTE에 이어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 FCC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의 거래 규제 방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웨이가 미국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2012년 미국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첩보 수집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이미 화웨이에게 과거 5년간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으로의 수출 거래 내역을 요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화웨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
 - 2018년 1월, 화웨이는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AT&T를 통해 스마트폰 ‘메이트10’을 미국 시장에 출시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의 저지로 인해 좌절되었고 4월 17일 FCC의 거래 규제 방안이 가결됨.
 - 화웨이는 미국의 거듭되는 제재 속에,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음.
 - 최신 스마트폰 P20, P20라이트, P20프로 등 3개 제품이 오는 5월 17일 캐나다에 출시될 예정.

표 1. 화웨이의 회의 개최 일정과 내용

일정	내용
2018년 3월 27일	파리에서 ‘화웨이 P20 프로 신제품 발표회’ 개최 - 화웨이의 위청둥(余承东) 소비자담당 CEO는 미국 시장이 없더라도, 화웨이는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2018년 4월 17일	선전에서 ‘2018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회의’ 개최 - 화웨이의 쉬즈쥘(徐直军) 순환 CEO는 중미 관계의 해결이 쉽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일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018년 4월 22일	푸저우에서 ‘제1차 디지털 중국 건설 회담’ 개최 - 화웨이 기술 유한공사 량화(梁华) 사장은 칩 디자인 설계, 수학적 알고리즘,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생태 업무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ICT 발전 계획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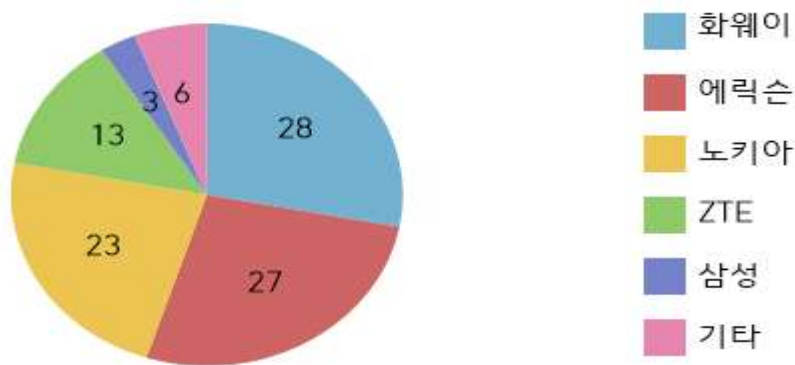
자료 :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한편, 화웨이 쉬즈쥘(徐直军) 순환CEO는 “어떤 일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일들은 포기하면 오히려 흥분해진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화웨이의 미국 시장 포기로 읽힘.
- 4월 20일, 미국 포포스는 화웨이의 세계 전략 속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
 - 미국 애서튼 리서치(Atherton Research)의 부총재 진뵈티스트 수(Jean Baptiste Su)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 고위 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화웨이의 세계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에서의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 나갈 것이며, 올 연말이 되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이번 미국의 첨단기술산업 규제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도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조치로 미국 중소형 통신업체까지 중국 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중국 기업들은 중요한 시장을 잃게 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가 입은 타격은 에릭슨, 노키아 등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매년 300억불 상당의 모바일 인프라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함.

그림 1. 2017년 모바일 인프라 시장점유율

2017년 모바일 인프라 시장 점유율



- 경제주간지 차이징망(财经网)은, 통신업계로 대표되는 중국 과학기술산업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유일한 경쟁국이며 중국이 과학기술 R&D에 적극 투자하고, 중국 과학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주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적.
 - 이런 맥락에서 화웨이의 미국 모바일 네트워크 설비시장 점유율이 1% 미만임에도 화웨이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으려 한다고 분석함.
- 특히, 5세대(5g) 통신망 서비스가 곧 상용화 되는 시점에서 결정된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IT 업계의 부상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평가¹
- 중국 상무부는 가오펑(高峰)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이번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무역 전쟁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고 미국 소비자와 세계 발전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함.
- 중국 외교부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중국 화웨이, ZTE 등 기업의 스파이 활동 혐의를 지적한 것에 대해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함.
 -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중관계는 갈림길에 서 있고, 향후 미중 관계 발전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자신, 세계 및 양국 관계를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힘.

1. ZTE와 화웨이는 5g 통신망 서비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이동통신기업에 자국산 통신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음.

참고문헌

- 「财经网」美国针对中国通讯设备再出手，这次目标是华为？，2018-04-18
- 「财经」中兴事件中比罚单更沉重的反思：合规，中国企业新挑战，2018-04-18
- 「中金在线」中兴被禁，华为告急！美国直刺这个软肋，2018-04-18
- 「观察者网」中兴之后，轮到华为？，2018-04-18
- 「跨境金融监管」中兴通讯为何被美全面封杀？，金融监管研究院，2018-04-17
- 「观察者网」华为回应“撤出美国市场”：以官方信息为准，2018-04-22
- 「财经网」中兴通讯事件现转机 中美斡旋进程加速，2018-04-22
- 「财经国家周刊」华为之怒：退出美国市场！，2018-04-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